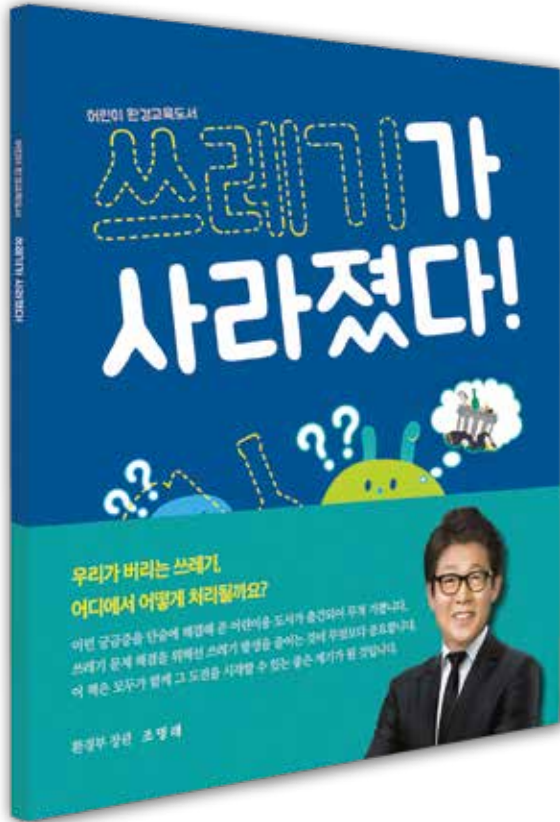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분야 ‘그레타 툰베리’ 양성 환경교육도서 수도권 초등학교 2천146곳 배포



조명래 환경부장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폐기물 분야의 ‘그레타 툰베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어린이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 기후변화 총회 연설로 주목받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의 ‘2019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스웨덴 출신의 10대 환경운동가다.

공사는 그 첫 단계로 지난 어린이날에 맞춰 환경교육도서인 ‘쓰레기가 사라졌다’를 발간했다. 급증하는 쓰레기 배출량의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의 동참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도서는 주인공인 초등학교생 현승이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의문에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 등을 담아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쓰레기 처리 과정, 쓰레기 관련 역사 이야기,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이 쉽게 소개됐다. 또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수도권 3개 시·도 홍보대사 등 국내·외 명사들의 추천사도 담았다.

조명래 장관은 “쓰레기 관련 이야기가 쉽고 재밌게 쓰였다”며 “이 책이 어린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소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박진희 배우(서울시 홍보대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재미있고 쉽게 배운다면 더욱 실천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쓰레기 없는 삶’ 실천가인 미국의 환경운동 실천가 비 존슨(Bea Johnson)도 이 책을 추천하며, 한국 어린이들의 환경보호 실천을 응원했다.

공사는 비매품인 이 도서를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2천146곳의 초등학교 도서관에 순차적으로 1권씩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www.slcr.or.kr)에 전자책(e-book)을 게시하고, 책 속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소리 책(Audio-Book)으로도 병행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하반기에는 독후감 경진대회와 ‘쓰레기 없는 삶’을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특강도 마련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 쓰레기 양을 2018년보다 10% 줄여야 하는 반입총량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반입 수수료를 내야하고, 5일간 반입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